韓半島 平和定着모델의 研究

1975. 5.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研究機關 : 서 울 大 學 校

研究責任者 : 朴 奉 植

目　次

1. 平和定着의 概念 3

2. 韓半島 平和定着의 条件 11

가. 南·北韓関係의 現実的 課題 13

ㄱ) 南·北韓 政治權力 및 体制能力의 比較 14

ㄴ) 北韓政治体制와 南·北韓 平和定着과의 関係 17

나. 南·北韓関係의 環境的 要因 19

ㄱ) 强大國의 世界戰略과 韓半島 19

ㄴ) 東北亜 勢力均衡의 性格 34

3. 平和定着을 위한 代案 検討 39

가. 平和定着方式의 하나로 써의 統一 41

ㄱ) 武力統一 43

ㄴ) 平和統一 47

A. 韓国의 平和定着 方案 47

① 対決的 共存関係 48

② 厳正한 共存関係 48

③ 平和的 共存関係 49

B. 北韓의 平和統一 方案 53

4. 平和定着을 為한 政策(건의) 59
① 유엔同時加入의 推進 61
② 南·北韓頂上会談 61
③ 韓國大統領의 北京 및 「모스코」訪問提案 62

1. 平和定着의 槪念

ㄱ)

一般的으로는 戰爭을 끝맺고 平和를 樹立하는 方法은 戰鬪終結을 規定하는 休戰協定의 締結과 이 休戰協定에 따른 戰爭終結을 規定하는 平和条約을 締結하는 것이다.

그런데 第二次大戰後에는 第一次世界大戰의 境遇와는 달리 一般的인 平和条約을 締結하지 못하였다.

勿論 個別的으로는 1947年 伊太利, 핀랜드, 불가리아等의 國境을 定하는 講和条約이 締結되었다. 그리고 冷戰의 激化와 더불어 1951年 美國을 위시한 自由陣営國家들이 日本과 締結한 소위 対日講和条約 그리고 西独이 1954年 「나토」에 加入하는 前提로 美 美國 및 西欧諸國과 취한 戰爭終結措置等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第二次大戰의 結果 政治的重要性이 큰 領土上의 変更이 있었던 地域인 独逸, 폴랜드 및 日本을 相対로 하는 講和条約은 締結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東·西欧 安保会議를 通하여 이미 이룩된 領土上의 変更에 最終的인 法的決定을 賦與하고 一般的 平和의 效果를 얻으려 하고있다. 그리고 極東에서는 蘇聯과 中共의 対日講和가 남아있다.

ㄴ)

다음으로 第二次世界大戰後의 一般的인 戰爭終結方式의 特徵으로는 事実上의 講和 또는 実質的인 平和定着을 意味하는 承認制度의 利用을 들수 있겠다.

一般的으로 交戰関係 또는 敵対関係에 있던 國家에 対한 承認은 一般的인 國際法上의 慣例로는 交戰國間에 講和条約이 締結되고 이 講和条約에서 承認과 國交樹立에 関한 規定을 하고 이規定에 따라 承認과 國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第二次世界大戰後에는 위에서 지적한데로 一般的인 講和 即 主要 交戰國인 独逸과 日本을 相対로 하는 一般的인 講和가 締結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蘇聯은 独逸과 日本에 対하여 講和以前에 承認과 國交樹立을 通하여 事実上 戰争을 終結하는 平和定着의 政策的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即 蘇聯은 1955年 西独과 그리고 1956年에는 日本과 國交를 正常化하였다. 蘇聯이 西独과 國交를 正常化한것은 같은 해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中立化条約의 成立에서도 보는 바와같이 蘇聯이 欧洲大陸에서의 現状維持를 政策으로 한다는 것을 意味하였다. 蘇聯의 西独과의 國交樹立의 代価는 東·西独関係의 同格化要求였고 이것이 蘇聯의 欧洲에서의 現状維持政策의 準拠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956年 蘇聯이 日本과 講和도 하기前에 國交를 樹立하였는데 이것은 蘇聯의 極東에서의 現状維持政策을 意味하며 日本과의 講和를 기다리지 않고 平和定着부터 하려는 努力의

表示라고 하겠다.

그리고 蘇聯의 対日國交樹立은 南・北韓의 分断을 包含하는 現状状態에서의 平和定着作業으로 解釈될 수 있었다.

그런데 中共이 1972年9月末 日本과 國交를 樹立하였는데 이것도 蘇聯의 境遇와 같은 水準에서 解釈될 수 있으며 같은 性格의 것으로 볼 수 있을것인가에는 일단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이 일본과 國交를 樹立한것은 우선 日本의 美.日安保協力関係를 極東勢力均衡維持의 要因으로 본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여기에 南北韓의 分断 現実도 極東勢力均衡의 틀속에 要因의 하나로 包含시키고 있느냐는 確実치가 않다. 1971年 여름 周恩來의 여러가지 発言으로 본다면 南・北韓分断의 現実이 中共이 必要로 하는 美・日安保協力関係 状況과 相容 또는 그 一体로 이루는것으로 解釈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73年末 以來 中共은 美國의 台湾政策에 対한 不満으로서 인지는 確実치 않으나 南・北韓分断의 現実을 中共의 対日平和定着概念에 包含시키지 않으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ㄷ)

여하튼 以上에서 보는 대로 戦争을 終結하는 平和条約 또는 講和条約을 締結하지 않고 平和定着의 効果를 目的으로 하는 政策으로서의 承認 또는 國交樹立의 例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承認 또는 國交樹立이 中共과 蘇聯의 対日共存政策의 表示임은 더 말할것 없겠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이러한 政策을 必要로 하는 状況의 継続을 前提로 한다. 이러한 状況이 変更되는 境遇 그 政策도 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政策의 変更을 不可能케 하는 保障制度는 그것이 强大國을 対象으로 할때 그것은 곧 戰争으로의 길이다. 다만 强大國들이 保障의 主体가 되는 境遇 그리고 强大國間의 合意가 前提될 境遇 保障制度는 效力을 発揮할 것이다.

以上의 一般的인 平和定着의 概念규정이 韓半島에는 어떻게 適用될 것인가를 検討해 보기로 한다.

ㄹ)

먼저 南北韓間에 있어서 平和定着이란 具体的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밝혀놓고 너머가야 할 것이다.

結論 부터 먼저 말한다면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이란 現時点에 있어서의 現状을 固定化하는것을 意味하며 이固定化된 現状을 制度化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簡単한 概念規定에는 南北韓間의 길고도 複雜한 事実関係의 展開 또는 進展을 想定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現休戰体制의 維持(修正도 包含)에서 시작하여 理想的으로는 現在의 東·西独関係로 까지의 発展 그리고 거기에 対한 東·西欧安保会議와 같은 國際的体制의 樹立에 이르기 까지의

內容을 상정할 수 있다. 即 南·北韓間의 主体的合一에 의한 現狀에의 固定化와 그리고 있을수 있는 國際的保障制度에 이르기 까지의 內容을 包含하여 平和定着方案을 構想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南北韓間에는 平和統一또는民族主義等에 同一한 用語가 쓰여지고 있으나 그 意味와 定義가 서로 相反되고 있음은 더 說明의 必要가 없을것이다. 이러한 現状은 더 말할 것없이 이데오로기의 差異와 対立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兩者間에 平和와 統一은 理論上에 있어서 不可能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戰爭은 避하여야 한다는 것이 民族的命題라면 여기에 南北韓関係의 安定化란 現実的 必要性을 南北韓이 共히 느끼게 되는 境遇는 想像할수 있을것이다. 바로 이点에 本研究의 必要性이 생긴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研究의 出発点은 北韓이 南北韓関係의 安定化를 잠정적이나마 願하느냐 또는 安定化를 받아 들일수 있느냐 적어도 安定化에 関心을 갖이고 있느냐를 検討하지 않으면 안되며 끝으로 北韓이 생각하는 南北韓関係의 安定化가 무엇을 意味하느냐를 究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問題들에 하나 하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南·北韓関係의 現実로 보나 有関列强들의 一般的 政治傾向으로 보나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은 不可避하다는 前提下에, 또 이方向으로 事態를 끌고 간다는 前提下에 問題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境遇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平和定着化 方案은 民族統一이란 名分을 버리지 않으면서 南·北韓이 容納할 수 있고 同時에 有関列强들도 적어도 無害하다는 黙認을 받을 수 있는 方案이 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그리고 이 平和定着方案은 南·北韓이 共히 또는 어느 한쪽의 이니시아티브로 提起될 수도 있고 有関國의 提案일 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境遇에도 平和定着方案은 有関列强의 利害와 制度的으로 連結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平和定着에 関한 問題意識 또는 槪念的인 定義下에 本題目下의 硏究를 進行시키고저 한다.

2. 韓半島平和定着의 條件

韓半島平和定着의 条件에는 南北韓当事者들의 事情 또는 状況이라는 主観的条件과 韓半島의 情勢에 利害関係를 갖이는 有関國들의 政策이라는 客觀的条件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두条件들이 調和를 이룰때 비로소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定着의 可能性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觀点에서 먼저 韓半島平和定着의 主觀的条件으로서 南北韓 各各의 政治 및 体制의 性格을 分析하고 現在의 南北韓関係의 状況과 性格을 糾明해 본다.

그리고 이어서 韓半島平和定着의 客觀的条件으로서 有関列强의 政策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가. 南北韓関係의 現実的課題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이란 問題가 解決될려면 먼저 南·北韓間에 克服되어야할 여러가지 課題가 있다.

이러한 課題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南·北韓間의 統一의 条件이 成熟될 때 까지 또는 統一의 条件을 成熟시키기 위하여 暫定的으로 南·北韓間의 共存이 受諾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南·北韓이 順順히 共存의 意思를 表示하는 境遇에도 이를 平和定着이란 槪念으로 制度化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特히 北韓이 南韓과의 共存을 拒否하고 있고 그 拒否의 理由로서 民族主義

的名分을 提示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理論的, 現實的인 難関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難関克服을 為한 作業의 하나로 우선 南·北韓間에 있어서의 政治 또는 体制의 性格을 糾明하여 본다.

ㄱ) 南·北韓 政治權力 및 体制能力의 比較

南北韓間의 政治權力과 体制能力의 比較 그 自体가 目的이 아니라 平和定着의 可能性 検討와 그 方法如何를 다루는 것이 目的이기 때문에 그 限界內에서 이 問題中 特徵的인것 몇가지를 比較検討함으로서 平和定着方案研究의 進行에 參考코저한다.

北 韓	南 韓
o 一党独裁政權	o 複数政党下의 民主主義政權
o 共産党 支配下의 全体主義体制	o 政治的多元主義의 原理
o 唯一思想에 依한 不変의 指導体制	o 可変의 原理에 立脚한 指導体制
o 이데오로기的으로 現状打破 赤化統一의 本質과 準備를 갖이고 있음.	o 理念的으로 現状維持的이며 現状変更을 為한 準備가 없음.
o 平和統一宣伝에 適応하면서 軍事力을 위장 維持한 体制的 性格을 갖임.	o 公開社会의 特徵上 軍事力을 위장 保有할 方法이 없음.

以上에서 南·北韓間 政治權力과 体制의 特徵을 対比해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 北韓의 境遇 그 政權의 性格과 体制로 보아 共存을 內容으로 하는 平和定着에 同意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赤化統一을 위한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即 그들이 말하는 平和統一은 곧 北韓政權과 体制를 全韓半島에 拡大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 內容을 한두가지 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政治的 態勢①

(1) 労動党 対南事業部 强化

党中央委에 連絡部, 調査部, 文化部등을 設置하여 南韓各道의 実態調査 地下党組織의 支援 그리고 그들의 所謂 南韓接受 要員의 養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內閣의 各省에 南韓研究 機関設置 및 運営하고 있으며 各郡 人民委員会에 対南事業 業務가 賦與되고 있고 郡人民委員会 副委員長 3人中 1人은 이 対南事業을 担当하고 있는 実情이다.

(3) 労動党員数의 拡大政策

北韓은 南韓의 全域의 統治要員의 確保를 目標로 하는 党員拡大政策과 境遇에 따라서 総選을 実施하는 境遇 여기서 2対1로 勝利할것을 目標로 하는 党員拡大策을 推進하고 있음. 1955年 100萬名, 1961年 131萬名, 1971年엔 160萬名으로 拡大시키고 있음.

(4) 対南要員 教育機関의 設置

松都政治経済大学의 設置 運営을 包含하여 各道에 共産大学을 設置 対南 工作要員을 養成하고 있다.

(5) 그리고 赤化統一을 為한 外廓団体로서 1949年에 된 祖國統一 民主主義 民族戰線 1961年에 된 祖國平和統一委員会等을 設置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北韓側의 攻勢的인 態勢에 比해 南韓側은 形式的인 「以北五道庁」을 除外하고는 消極的인 姿勢를 갖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u>思想的 体制</u>

(1) 金日成 唯一思想에 依한 北韓의 思想的 要塞化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全人民을 盲動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体制를 갖추고 있다.

(2) 金日成 主体思想의 体制化

金日成 抗日闘争 経歴을 過大宣伝하여 이를 民族主義的 歴史와 連結시켜 北韓政権의 歴史的 正統性을 捏造하고 있다.

(3) 南韓 解放精神의 鼓吹

金日成 主体思想을 民族精神으로 까지 昇華시켜 南韓解放을 正当化하며 南韓과의 対決에서는 金日成 唯一思想에 依한 北韓의 団結 나아가서 全韓半島에 있어서의 金日成 唯一思想에 依한 支配

를 正当化하려 하고 있다.

軍事的 態勢

4大軍事路線의 完了

이상에서 보면 政治, 思想, 軍事等에 있어서 北韓은 南韓과의 軍事的 対決의 境遇나 対話나 交流또는 그들이 말하는 聯邦制에 이르기 까지의 所謂 対話있는 対決의 時代에 対処할 수 있는 体制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南韓은 上記한데로 自由民主主義原理와 体制의 性格上 전혀 積極的인 体制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勿論 自由秩序의 强点에 対한 信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갖이고 있는 自由秩序의 体制가 欠点없는 理想的인 状態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点을 考慮한다면 軍事的 対決만 아니라 社会, 経済 思想의 対決 또는 競爭이 强要되는 時代에 対한 対備가 必要하다 특히 우리의 自由의 秩序는 社会, 経済의 面에서 后進的 局面을 너무나 많이 内包하고 있기 때문에 自由秩序의 理論的 長点에만 依支할 수는 없다.

ㄴ) 北韓政治体制와 南·北韓平和定着과의 関係

以上에서는 北韓政治体制와 権力組織을 먼저 南韓攻勢의 次元에서 보았다.

다음으로 視角을 바꾸어 北韓의 金日成 唯一思想 및 所謂 主体思想을 対南交流時代에 対備한 態勢로 前提하고 이를 平和定着의

可能性과의 関聯에서 보기로 한다.

1970年 北韓의 第5次 党大会를 前后하여 本格化되기 시작한 金日成 唯一思想과 主体思想 놀음은 우선 基本的으로 国際情勢의 추이가 南·北対話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는 状況에 対한 体制維持를 위한 作策으로 解析될 수 있겠다.

첫째로 南韓과의 対話 또는 接触을 그들은 北韓共産体制에 対한 커다란 挑戦으로 보았으며,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共産党独裁体制를 強化 또는 엄호하기 為하여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北韓住民의 精神을 統一시킬 必要가 있었으며.

셋째로 所謂 主体思想으로 対南 또는 統一政策에서 可能한 한 外部勢力의 圧力을 避하는 한편 対南関係에서 民族的 歴史의 正統性을 主張하려 할 것이다.

넷째로 北韓의 4大軍事路線도 일단 南北対話時代에 있어서의 体制維持를 為한 実力的 基盤으로 前提한다.

以上에서 보면 金日成 唯一体制로 代表되는 北韓의 政治権力과 統治体制를 일단 南·北対話 또는 交流(合作)을 為한 態勢로 보고 이러한 状況에서 可能한 平和定着의 方案이 무엇이겠는가를 検討해 본다.

나 . 南 · 北韓関係의 環境的要因

ㄱ) 强大国의 世界戰略과 韓半島

① 美国의 亜細亜 政策과 韓半島

키신저美国務長官은 그의 長官就任 3日만인 1973年9月 24日 유엔総会에서의 演説에서[②] 칸트(Kant)의 不可避한 永久平和에의 期待를 인용하면서 美国은 오늘날 単純한 休戰이 아닌 真実한 平和, 制度化된 平和를 追求하고 있으며 이平和의 安定性은 単純한 勢力均衡이 아니라 人類의 共通의 希望에 根拠를 둔다고 하였다.

이 境遇 人類의 共通의 希望은 核戰爭의 回避에 있음은 더 말할것 없을 것이다.

키신저는 国境에 限定되지 않는 正義 그리고 特定한 国民이나 集団 또는 이데오로기의 専有物이 아닌 普遍的 真理에 立脚한 美国対外政策 追求를 宣言하였으며 여기서 対蘇 対中共関係가 展開되는 것으로 説破하였다.

이러한 立場은 일단 美国의 또는 키신저의 理想主義的政策 또는 楽観主義的 情勢観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다만 明白한 現実的 姿勢는 対蘇 対中共関係에서 核武器를 通한 対決을 避한다는데 있음은 더 말할것 없겠다.

核戰爭排除를 前提로한 키신저의 楽観的 情勢観에 立脚한 平和의 制度化作業은 対소 対中共関係에서 部分的으로 成功하였을 뿐 越南

休戰協定의 파기상태 中東平和交涉의 第二段階에서의 失敗 地中海沿岸地帶에 있는 「나토」諸国의 混乱等으로 거의 破産状態에 놓이고 있는것이 지금의 事情이다.

키신저의 平和의 制度化作業은 미처 韓半島에서는 試験해 보지도 못했으며 그는 더 以上 交涉의 神通力을 発揮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키신저의 政策的発言이나 外交行動이 과연 美国의 것으로 믿을 수 있느냐의 境地에 까지 이르도록 民主党支配下의 議会와 行政府는 対立되고 있다.

따라서 越南平和協定의 파기상태와 関聯하여 그리고 越南軍의 敗走를 보고 멘스필드上院議員은 「한 時代의 終末이 始作되고 있다」고 하고 「美国은 亜細亜大陸国家가 아니라 太平洋国家이다」라고 하였다.

美国은 過去 30年間의 対外政策을 再検討하고 새로히 太平洋国家로서 政策的姿勢를 再定立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키신저나 포드大統領의 말보다도 멘스필드議員의 発言을 장차의 美国의 政策方向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過去와는 달리 美国行政府의 政策声明을 그대로 信頼하지 못하는 点은 国防政策에 関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슐레징거 美国防長官은 1975年2月12日 発表한 1976会計年度 国防白書에서 ③ 새로운 실제에 있어서 「닉슨」없는 「닉슨」독트린을 具現하는 戰略概念을 提示하였다.

Schlesinger가 이 国防白書中에서 韓半島와 関聯된 戰略的 考慮

를 表示한 部分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東北亜地域은 美国, 蘇聯, 中共 그리고 日本의 利害가 集中하는 地域임으로 集団的安保의 立場에서 関心의 対象地域으로 継続 머므를 것이다. 日本의 重要性과 우리의 相互防衛関係의 特殊性格으로 보아 이 地域의 安定에 対한 우리의 公約의 誠実性에 可視的인 証拠가 될 만큼 充分한 兵力을 維持하고 그리고 豫見할 수 없는 事態의 発生에 신속히 그리고 效果的으로 対応하는 信頼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 놓는것이 重要한 일로 되고 있다.」

「東北亜地域에 있어서 美国의 利害関係는 強力하며 우리는 日本 台湾 그리고 韓国과 相互防衛条約을 継続 維持한다.」

「韓国에 対한 直接的 威脅이 至今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深刻하게될 政治的変化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韓半島는 美軍의 展開와 増強에 必要한 費用의 最少限으로 比較的 쉽게 防衛할 수 있는 地域이다.」

「우리의 情報는 金日成의 마음의 旋回를 理解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韓国이나 美国에 対하여 友好的이라고 믿을만한 証拠가 없다. 美国의 撤収는 金日成으로 하여금 至今보다 덜 慎重하게 하여 모험을 試図하게 할 可能性이 있다.」

「東北亜에 있어서 우리의 強力한 拠点은 「오기나와」에 支援兵力을 갖는 南韓이다. 韓国軍과 더불어 南韓에 있는 第二師団은 견고한 戦線을 確保하고 北韓만에 依한 単独的 기습攻撃을 물리 칠수 있다는 合理的인 保障을 주는데 充分한 比率의 兵力 및 火力을 保

有하고 있다· 우리의 兵力展開는 必要한 境遇 훨씬 더 많은 兵力을 구축할 수 있는 必要한 根據를 亦是 提供하고 있다.」

「아마도 더 重要한 것은 欧洲에 위기가 発生하는 境遇 우리의 亜細亜에서의 兵力은 몇가지 重要한 目的을 갖일 것이다. 첫째로 다른 亜細亜国家에 依한 모험을 억제한다. 둘째로 現在 亜細亜地域에 配置된 軍事力의 우랄(Urals)山脈以西로의 移動을 防止한다. 셋째로 地上이나 海上에서 東北亜에서 또 하나의 戦線이 展開되는 것을 防止한다. 우리의 韓国과 「오기나와」에 있는 兵力配置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톤에 있는 移動性軍事力과 더불어 이들 目的을 達成하는 基本的 手段을 提供한다.」 (上同 P111—30 참조).

以上의 比較的 긴 引用에서 보건데 韓半島는 越南戦의 終熄과 더불어 없어질 泰国의 境遇와는 달리 東北亜에서의 役割만이 아니라 欧洲와 連結된 美国의 世界戦略的인 拠点의 重要性을 갖춘 것으로 説明되고 있다.

이러한 韓半島의 美国戦略概念上의 重要性이 이렇게 具体的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勿論 上記한 멘스필드의 새로운 概念대로 海洋国으로서의 美国이라는 立場에서 戦略構想을 다시 세워야 할때 이 슐레징거의 概念은 어떠한 影響을 받을지는 確実치 않다. 다만 越南事態의 悪化에 対해 슐레징거가 越南의 共産化에도 亜細亜地域에서의 勢力均衡에는 変化가 없다고 한 言明이라든지, 이번 報告에서 泰国의 地位를

韓國과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한 点에 비추어 장차 美国에 民主党政府가 들어 선다고 하더라도 이번 술레징거 報告書의 基本理論에는 큰 変化가 없을것으로 豫想된다.

②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本研究의 目的에 焦点을 맞추어서 蘇聯의 対外政策 特히 亞細亞政策을 論한다면 먼저 蘇聯의 所謂 亞細亞 集団安保論과의 関聯에서 蘇聯의 韓半島政策을 보는것이 첩경이다.

왜냐하면 欧洲에서나 亞細亞에서나 기본적으로 第二次世界大戰의 領土変更을 既定事実로 해서 現状維持에 対해 集団的인 努力을 傾注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主로 亜細亜에서의 集団安保라는데 焦点을 두고 論及하겠다.

브레즈네프가 1969年6月의 世界共産党 大会에서의 긴 演說中에서 亜細亜에서의 集団安保問題도 討議해 볼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짧게 言及했는데 이처럼 짧은 言及이 또 이것처럼 큰 政治的 波紋을 던진일도 드물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1971年3月30日 第24次蘇聯共産党大会 에서의 브레즈네프의 ④ 報告는 「第二次世界大戰의 結果 欧洲에서 생긴 領土의 変化를 最終的으로 承認하는데서 부터 出発하여야 한다. 欧洲大陸에서 緊張緩和와 平和에의 根本的転換을 期해야 한다. 全欧安保会議를 열어 그 成功을 保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972年3月20日 蘇聯労動組合 第15回 大会에서 브레즈

네프는 蘇聯의 対外政策에 関해 긴演説을 하였다. 여기서 그는 第24次党大会에서의 演説内容을 되풀이 하고 일방 처음으로 欧州共同市場의 存在를 承認하는 発言을 하는等 現状維持路線을 보다 더 具体化하였다.

이러한 路線에 따라 1973年2月12日「모스크」放送을 通한 亜細亜集団安保를 蘇聯政策과 関聯에서 解説이 나오기 시작한 以來 蘇聯의 言論은 亜細亜集団安保論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主要한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蘇聯은 亜細亜集団安全保障에 国家関係에서 武力을 使用하지 않을것, 主権을 尊重하고 国境을 侵犯하지 않을것, 内政不干渉 完全한 平等과 互恵에 기반을 둔 経済 其他 協力의 広範한 発展이란 原則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亜細亜集団安保에 関한 論述들은 다음과 같다.

「亜細亜의 集団安全保障은 欧洲의 그것과 같이 亜細亜諸国間의 現在国境의 不可侵, 各国의 領土保全이란 原則이 承認되지 않는 限 生覚할 수 없다. 이原則을 굳게 지키는 일은 帝国主義列强이 아직 戦后国境의 改訂計劃을 버리지 않고 領土要求를 継続하고 国境問題를 이용해서 一部의 諸国民을 선동하고 있는 現在 特히 重要하다」.
(アジア集団安保와 千島問題, 志賀義雄編 P241)여기서 보는데로 「現在 国境의 不可侵」「戦后国境의 改訂計劃」等 表現에서 南北韓間의 境界도 여기에 包含되는지 明白하지 않다. 理論上으로는 当然히 包含되나 北韓이 中蘇対立을 利用하려는 現状에서 蘇聯은

公公연히 38度線을 「戰后国境」의 概念에 包含시키기는 어려울 境遇가 있을 것이다.

여하튼 欧洲에서의 東·西欧集団安保는 二次大戰後 一般 講和条約을 締結하지 못해 領土変更에 対한 最終的 確認이 없었는데 対한 措置임이 明白하고 欧洲에서의 経験과 例에 따라 亜細亜에서 二次大戰後의 領土変更을 既定事実로 認定하고 一般的 講和에 該当하는 集団安保의 措置를 取하자고 하는 境遇 南北韓의 分断도 二次大戰後의 領土変更의 概念에 包含되는 것은 더 말할것 없을 것이다.

勿論 蘇聯의 이러한 目標에는 日本의 北方領土에 対한 要求의 拋棄가 包含되는 것은 明白하다.

한편 1974年12月4日 유엔総会에서 「마리크」유엔代表는 韓国問題를 討議하는 会議의 発言⑤에서 1974年11月의 Uladivorkh 美·蘇頂上会談이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한 美·蘇関係의 発展에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하고 1974年3月25日 北傀가 美国과 平和条約을 締結할 것을 提案한 事実 그리고 北傀의 南·北調節委에서의 南·北韓平和協定을 提案한 일等을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그 演説을 끝맺으면서 亜細亜集団安保와 韓国問題의 解決에 関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亜細亜에 있어서 亜細亜大陸 여러나라들의 共同의 努力에 依하여 信頼할 수 있는 安全保障을 確保하려는 아이디어는 꾸준히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例外없이 모든나라의 参與에 依한 集団的基盤에 立脚한 亜細亜에 있어서의 安全保障의 強化는 時代의 精神과

亜細亜大陸의 諸国의 利益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蘇聯은 亜細亜大陸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全의 諸問題들에 対한 信頼할 수 있는 解決策을 求하려는 亜細亜諸国의 積極的인 努力을 지지하고 있으며 継続 지지할 것이다. 韓国問題의 解決이 極東에서 만이 아니라 亜細亜全体에 있어서의 事態를 好転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은 疑問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演説을 끝맺었다.

勿論 마리크(malik)는 여기서 駐韓外軍의 撤収를 要求하는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지만 中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톤으로 演説하고 있었다.

여하튼 以上의 最近 蘇聯의 政策表明에서 보는바와 같이 対外政策의 기반의 하나가 「集団安保」論임을 알 수 있으며 이「集団安保」가 第二次大戦으로 생긴 領土変更을 既定事実로 하는데서 出発하고 있다는 데서 蘇聯은 韓半島에서의 分断状況도 既定事実로 받아 들이고 美·蘇 데땅트의 틀속에 韓半島問題도 包含시킬 수 있다고 判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全欧安保会議가 美軍의 西欧駐屯과 蘇聯軍의 東欧駐屯의 事実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③ 中共의 対外政策과 韓半島

中共의 対外政策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대로 中共의 対外政策을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定着과 関聯에서 即 韓半島 平和定着에는 어떠한 態度

를 取할 것인가의 角度에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中共의 対蘇,対美関係의 基本立場과 둘째로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는 中共의 政策을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中共의 対蘇,対美関係를 본다. 中共의 対蘇政策의 基本은 蘇聯과의 妥協을 拒否하면서 蘇聯의 武力攻擊을 避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蘇聯과의 妥協이란 中共은 蘇聯에의 屈辱的 降伏으로 生覚하고 있다.

中·蘇対立을 全面的으로 取扱할 여가는 없다. 中共은 国境問題를 가지고 日本의 蘇聯에의 接近을 막는데 온갖 努力을 다하고 있다. 1974年10月 中共은 蘇聯의 여러차례에 걸친 不可侵 協定을 拒否해 오다가 스스로 蘇聯에게 不可侵協定을 提案하였다.

「紛争国境地域으로 부터의 蘇聯軍隊의 撤収를 前提로 하는 不可侵協定」을 中共이 提案하였다.

브레즈네프는 1974年12月下旬 Vladirostok 頂上会談에서의 帰路 우란·바톨에서 中·蘇国境에는 紛争地域이란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여 一言之下에 拒否하고 말았다.

다음으로 中共의 対美政策의 基本은 蘇聯의 威脅을 美国의 亜細亜勢力으로 견제하고 한편으로 台湾으로 부터 美国 軍事力의 撤収를 実現하는 일이다.

1973年과 1974 兩年에 걸쳐 美·中共関係는 1972年2月27日의 上海共同声明에서 中共이 期待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即

越南平和協定의 成立에도 不拘하고 台湾으로 부터 美軍은 減縮되지 않았으며 美国内 自由中国領事舘数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5年内 포드美国大統領의 豫定된 中共訪問을 通하여 美国은 北京과 大使関係를 台北과는 連絡事務所関係를 設置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1974年11月 Vladivostok에서의 美・蘇頂上会談은 中共에게는 대단히 不愉快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의 전개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関心事인 中共의 北韓 統韓政策支持는 더욱 强化되었다.

中共이 北韓 統韓政策을 支持하는 가장 큰 理由 即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現状維持에 反対하는 理由는 現状維持에 同意하는 것은 台湾解放을 不可能하게 하는 것이라고 生覚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台湾問題가 中共에 満足스럽게 될때까지는 中共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非協調的일 것이며 極東地에서 蘇聯이 提案하는 集団安保要件의 하나인 日本의 対蘇 「北方領土」要求를 継続 煽動할 것이다.

여하튼 中共의 北韓統韓政策支持의 理論的 背景으로서 「第三世界」論을 잠간 볼 必要가 있겠다.

中共副首相 鄧小平은 1974年4月 資源問題에 関한 유엔特別総会에서의 演説에서 第三世界論을 展開하고 従来 中共의 中間地帯論을 発展시켜 中共外交의 큰 路線으로 提示하고 있다.

여기서 鄧小平은 世界를 美・蘇兩大超强大国을 「第一世界」라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온 世界人民들을 抑圧 착취하고 있고 이兩者의 矛盾으로 世界大戰은 不可避하다고 한다. 그리고 西欧와 日本을 「第二世界」라고 하고 이들은 美·蘇等 第一世界와 矛盾을 이르키고 있고 그 以外의 모든 나라는 「第三世界」에 屬하는 나라들인데 이들은 「第二世界」와 交渉이 可能하며 資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第三世界의 団結로서 「第一世界의 抑圧과 支配 및 戰爭政策을 막을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中共은 스스로 社会主義国家인 同時에 後進国家이기 때문에 「第三世界」에 屬하는 나라로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鄧小平은 말하되 이제 東·西間에 陣営이란 것이 없어졌고 世界는 以上 3가지 世界로 対立되고 矛盾되고 있다고 한다. 即 오늘날에는 社会主義陣営이란 것은 없어 졌는데 그 理由는 蘇聯이 帝国主義로 変化했기 때문이며 資本主義陣営은 없어졌는데 그 理由는 美国과 余他資本主義 国家와의 対立으로 資本主義陣営이 解体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1973年 第28次総会에서 本格的으로 第三世界를 動員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反帝国主義란 旗織아래 美·蘇를 除外하고 阿·亜·라틴아메리카諸国에 対한 影響力을 中共이 拡大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第三世界에 対한 影響力에 北韓이 의지하여 유엔을 비롯한 国際機構와 国際外交舞台에 登場하고 있는데, 그 例를 1974年11月29日 유엔総会에서의 中共代表 黄華의 韓国問題에 関

한 演說에서 보고저 한다.

黃華는 北傀代表 이종목의 演說⑥을 支持하고 이어서 北傀도 「항상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第三世界諸国들이 展開하는 帝国主義, 植民主義, 人種差別主義 그리고 찌오니즘에 對한 鬪爭을 能動的으로 支持해 왔다. 朝鮮人民의 独立과 平和統一路線은 그 자체가 第三世界의 反帝国主義鬪爭의 一部分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第4次非同盟頂上会談가 「유엔旗下의 駐韓外軍撤收와 朝鮮의 內政에 対한 外部干涉의 終熄을 要求하는 決定을 내리도록 유엔에 要請하는 決議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所謂 五大綱領支持를 包含하는 北韓의 統一政策에 対한 第三世界의 支持를 여기서 본바와 같이 中共이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中共의 政策이 一次的으로는 蘇聯과 美国을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고 나아가서 南北韓의 平和定着에 非協調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한편 中共이 北韓의 軍事的 統一政策까지를 支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疑問이다. 即 現在의 南·北関係의 積極的인 悪化를 支持하느냐는 疑問이다.

1971年 여름 닉슨의 中共訪問이 豫定 되었을때 周恩來는 南北韓間의 和解에 言及한 적이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勿論 그때에는 美国의 台湾에서의 讓步期待가 컷기 때문이었는지는 確実치 않다.

여하튼 平和定着의 可能性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일단 中共의 北

傀統一政策支持 理由를 일단 中・蘇対立과 美国의 台湾政策에 対한 不満에 있는 것으로 解析한다면 中共은 韓半島자체의 現状維持와 平和定着에 積極的으로 反対해야할 理由는 많지 않다고 結論지울 수 있울것이다.

特히 1969年以来 漸次 中共・北韓関係가 긴밀화 되어 간다고 하 하더라도 北韓의 金日成은 언제던지 또 親蘇쪽으로 기우러질 憂慮가 있기 때문에 中共自体의 利害関係事가 거의 解決되어 가는데도 継続 金日成支持를 長期的으로 고정시키리라고는 生覚되지 않는다. 그리고 極東 시베리아地域의 不可避한 開発을 生覚한다면 金日成도 蘇聯의 路線을 끝까지 外面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④ 日本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日本対外政策은 韓・日両国間의 歴史的, 地政学的性格으로 보아 어떠한 境遇에도 韓国과 無関할 수 없으며 韓半島의 情勢 또한 日本의 政策에 深刻한 影響을 주고 있음은 事実이다.

그 中에서도 日本의 韓半島와 関聯된 政策은 事実상 美・日関係를속에서 정해지고 있다. 政治, 軍事의 面에서 特히 그러하다.

이러한 観点에서 가장 重要한것은 1969年11月22日字에 発表된 「닉슨」佐藤共同声明이다. 「오기나와」의 日本에의 返還 닉슨 독트린의 実施 対中共和解政策의 展開等을 내다 보면서 発表된 「닉슨」佐藤 共同声明은 지금도 有效하다. 1975년4月10日부터 華府에서 実施된 三木内閣의 宮沢外相과 키신저와의 会談에서 「닉슨」佐藤共同声

明에서 「韓国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긴요하다는」는 内容은 確認되고 있다.

한때 日本政府는 이 韓国에 関한 条項의 表現을 비공식적이지만 「韓半島의 安定이 日本의 安全에 긴요하다」고 고친적이 있었다. 어떻하면 이것은 日本의 韓半島政策의 限界를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여하튼 「닉슨」佐藤共同声明이 再確認되었다는 것은 美国의 韓半島介入政策에 日本이 前進的인 姿勢로 協助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日本의 韓半島政策은 美国이 韓半島에의 介入政策을 抛棄하지 않는한 美国政策에의 協助者로서의 立場이지 独自的인 政策을 갖이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日本의 対美·対蘇·対中共政策과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이란 観点에서 検討하겠다.

1973年10月以來 石油波動으로 더욱 切実해 졌지만 資源을 거의 全部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첫째로 資源供給源을 多元化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美国, 中共, 蘇聯等에 資源을 分散依存하는 方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떠한 境遇에도 日本은 美国이나 蘇聯에게 敵対的인 存在가 될수 없으며 蘇聯을 견제하기 為해서도 中共과의 関係를 維持해야 한다.

한편 日本은 経済 安全保障 文化等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美国志向的이고 西方側志向的이다. 経済 産業의 面에서 본다면 亜細亜国家라기 보다 大西洋(Atlantic)的이며 또는 亜細亜的인 太平洋国

이다.

따라서 宿命的으로 日本은 美国과 敵対国이 아니면 同盟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日本의 外交는 이러한 틀속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그 틀속에서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必要로 하는 蘇聯과 中共에 部分的으로 接触하고 있다. 다만 日本의 経済的要求를 美国이 満足시켜 주는 程度에 따라서 또는 対美関係를 害치지 않는 程度에서 日本은 対蘇 対中共 経済接触을 확대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日本의 対蘇経済関係拡大를 적극 反対하는 나라는 다름아닌 中共이다. 中共은 나호드카(Nakhodka)港口와 브라디보스토크를 中心으로 하는 시베리아地域의 開発은 中共의 満州에 対한 安全保障上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日本의 시베리아開発参与에 反対하는 一方 日本의 必要로하는 資源은 中共이 供給하겠다는 態度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周恩來는 1973年 10月 第十次 共産党大会의 政治報告에서 日本의 対蘇北方領土 要求를 支持하여 日本政府로 하여금 対蘇譲歩를 어렵도록 하여 日·蘇講和를 遅延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大慶油田의 開発과 더불어 1974年에는 中共이 日本에 年 5000 萬바렐을 輸出하기로 하였다. 이額数는 日本의 石油需要의 3%에 불과하다.

여하튼 日本은 美·日安保条約의 틀안에서 対中共 및 対蘇 和平政策을 通하여 日本이 필요로 하는 資源供給의 確保와 安全을 為해 努力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日本의 韓半島政策은 現状維持 및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에 어느 나라보다도 큰 利害関係를 갖인 나라라고 하겠다.

ㄴ) 東北亜 勢力均衡의 性格

以上에서 韓半島 周辺强大国들의 政策을 要約해 보았다. 이것을 다시 南·北韓의 分断状態가 現在의 强大国間의 勢力均衡의 要衡이라는 前提下에서, 換言하면 南·北韓의 現在의 対決 또는 対決속의 安定状態에 있는 現状이 極東勢力均衡의 基盤이라는 点에서 東北亜勢力均衡의 性格을 分析해 보고저 한다.

以上 强大国들의 政策分析에서 보면 美国과 日本은 하나의 勢力単位로서 南·北韓의 現状維持를 政策의 基盤으로 하고 있다는 事実을 指摘하였다.

그리고 蘇聯의 境遇도 그 対外政策의 現在의 要請은 第二次大戦後의 領土의 変更을 現実로 받아드리게 하는 現状에 対한 確認에 있음은 欧洲에서의 領土変更을 確認받으려는 東·西欧安保会議 極東에서의 日本의 北方領土의 返還拒否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南·北韓의 分断도 같은 現状維持概念에 包含시키고 있다고 判断할 수 있는것은 1974年11月의 브라디보스토크頂上会談時 포드大統領이 서울을 訪問하고 韓国에 対한 公約을 한 後 브레즈네프를 만났다는 事実에서 짐작할 수 있다.

勿論 上記한 바 있으나 1974年가을 유엔総会에서 蘇聯代表「마리크」는 北傀의 南韓駐在外軍의 撤収 主張을 支持하였으나 北韓의 対美対南韓平和条約提案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亜細亜集団安保

의 시기 및 蘇聯 스스로 東欧에 軍隊를 駐屯시키고 있는 事情에서 본다면 南·北韓分断의 現状이 東北亜 勢力均衡에 重要한 点임은 認定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現在의 親中共傾向으로 보나 韓半島에 있어서 現状의 変更이 日本의 核武装化等을 가져올 수 있는 可能性에서 본다면 蘇聯으로서는 南·北韓分断의 現実이 東北亜 勢力均衡의 安定과 直結되고 있음을 認定하고 있는 것으로 解析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中共은 어떤 態度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現南·北韓分断의 現状維持가 現在의 東北亜勢力均衡에 直結되어 있다고 生覚하고 이것을 維持하는것을 利益으로 生覚할 可能性을 본다.

① 現状態에서 中共은 対美·対日経済協力関係를 拡大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通하여 中共의 経済発展을 強化한다.

② 南·北韓分断의 現状을 包含하는 美·日安保体制가 蘇聯의 極東進出을 견제하여 結果的으로 中共의 安全에 중대한 功献을 하고 있다.

③ 金日成에 依한 全韓半島의 統一은 설혹 그가 継続 親中共態度를 継続한다고 하더라도 金日成의 힘으로 美国이나 日本을 견제하거나 蘇聯의 힘을 견제하는데 利用될 可能性은 거의 없다. 即 全全韓半島가 共産化된다고 하더라도 中共에게 오히려 짐만 무겁게 할 可能性이 있으며

④ 結果的으로 美国과 日本의 中共에 対한 態度를 硬化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現在의 現状変更 即 南韓까지의 共産化에 政治的利益을 걸고 이것이 可能한 方向으로 추진할 可能性은 다음과 같다.

① 北傀의 赤化統一政策은 美国의 支配下에 있다고 主張하는 台湾의 解放과 同一한 政治的 名分을 가지며 일종의 統一戰線을 형성하고 있다.

② 印支에서 共産勢力의 勝利는 中共후원하의 后進国에서 民族解放戰線의 勝利로 解析된다. 예컨대 시하누크의 亡命政府를 北京에 두게 하였으며 北韓은 反南韓宣伝的機会가 있을때 마다 시하누크內外를 招請 反美戰線의 共同闘爭을 强調하였다.

③ 印支에서의 勝利와 韓半島의 共産化는 美国의 台湾撤收를 不可避하게 할것이며 蔣介石의 死亡으로 이것은 더욱 可能하게 되었다고 生覚한다.

④ 印支의 共産化를 받아드리는 美国議会의 態度나 亜細亜大陸国家가 아니라 太平洋国家로서의 姿勢를 取해야 한다는 美国의 强力한 立場의 態度로 보아서 南韓을 지키기위해 6.25때와 같은 美国의 介入은 不可能하다.

⑤ 따라서 現在의 対日・対美関係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고도 南韓까지 共産化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金日成의 親中共姿勢를 보다 確実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美国의 対韓国防衛公約이 妥協의 可能性이 있는것이 라는 前提하에서 본다면 中共은 韓半島의 現状의 変更을 包含하는 東北亜勢力均衡에 修正을 가하려는 勢力으로 判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南·北韓関係의 現状維持의 関鍵은 美国의 韓国에 対한 公約의 確実性如何에 달려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한편 軍事的側面에서 東·北亜勢力均衡의 性格과 関聯하여 슐레징거(Schlejing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即 「蘇聯은 40個師団以上의 兵力과 900台以上의 戦術航空機를 소비에트 아시아(Soviet Asia)地域에 配置하고 있다. 이 軍事力은 中共의 攻撃을 防衛하는데 必要로 하는 量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戦闘力의 一部는 蘇聯의 太平洋艦隊와 더불어 対美軍事力이나 或은 必要한 事態가 생기면 美国의 同盟国에 대항해서 使用될 것이다. 簡単히 말하면 蘇聯은 두개의 戦線에서 싸울 軍事力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나토」를 対抗해서 欧洲에서 또하나는 亜細亜에서 中共이나 美国 또는 美国과 그의 同盟国을 対抗해서」.

이러한 観点에서 본다면 中共이 北傀 統一政策을 支援한다고 하더라도 東北亜勢力均衡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可能하며 역으로 말하면 美国·日本·蘇聯이 全韓半島의 赤化가 각기 自国들의 利益에 중대한 影響을 주는 不利한 方向으로 勢力均衡이 変化하였다고 生覚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金日成의 統一政策을 支持한다고 生覚된다.

이렇게 본다면 韓半島의 赤化에 가장 不利益을 느낄 나라의 順序대로 본다면 日本·美国 그리고 蘇聯일 것이다. 蘇聯의 境遇 金日成이 親中共路線을 견지한다는 前提下에서 이다.

結論的으로 보면 첫째로 極東의 勢力均衡自体의 破壞에는 强国들이 모두 反対이다. 둘째로 그러나 南北韓의 分断이 極東勢力均衡의 礎石이며 이均衡은 南·北分断의 現実과 直結되었다는 事実에 各 强大国 모두가 一致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셋째로 極東均衡과 南北韓分断 現状을 分離해서 生覚할 수 있는 나라의 順位를 보면 中共·蘇聯·美国·日本일 것이다.

넷째로 結果的으로 現在의 極東勢力 均衡은 이地域 国際政治의 최고의 秩序이나 韓半島分断은 이均衡의 틀이 不可分의 一体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可変的인 局面이 있으며 이局面은 金日成의 努力 中共의 지지 印支事態의 悪化等으로 拡大될 可能性이 있다.

다섯째로 따라서 東北亜勢力均衡의 性格은 韓半島事態의 可変性만큼 큰 変動없이 均衡状態에 修正의 余地가 있는 것으로 結論 지울수 있겠다.

3. 平和定着을 爲한 代案 檢討

3. 平和定着을 위한 代案 檢討

以上 分析에서 情勢가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에 有利한 情勢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 졌으며 金日成의 統一路線 中共의 台湾解放政策 印支事態의 悪化, 美国議会의 亜細亜大陸에의 不介入主張 強化등으로 오히려 平和定着의 方向에 不利한 情勢가 많아질 可能性이 있음을 排除할 수 없다.

크메르와 越南의 喪失로 南韓에서는 美国이 보다 強力한 政策을 쓰리라는 期待와 앞서 分析에서 보드시 韓半島 現狀維持에 利害를 같이 하는 勢力의 存在의 局面에 기대어 平和定着의 可能性을 前提로 하는 定着의 方式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平和의 定着은 基本的으로 現在의 南·北韓의 現狀을 前提로 한 共存을 制度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分析한 情勢의 性格으로 보아 平和定着의 方案에는 많은 前提와 仮定을 先行시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平和定着은 現在의 南北韓関係를 前提로 하는 것에 重点을 두지만 統一(그것이 武力統一이던 所謂 文字 그대로 平和이던 間에)도 平和定着의 한 方案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를 包含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서 平和定着의 性格을 보다 뚜렷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 平和定着의 方式의 하나로써의 統一

무릇 統一이란 말이 內包하는 概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包含된다.

첫째로 政治的 制度的面에서 보면 韓半島全体가 単一의 政治体制하에 統合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行政府 하나의 司法 하나의 立法体制下에 모든 統治体制가 単一化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単一의 経済体制가 確立되는 것을 말한다. 単一의 貨幣制度 単一의 経済計劃 単一의 貿易 通商政策등이 全韓半島에 実施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同一한 教育理念하의 国民教育이 실시되고 単一의 文化政策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넷째로 国民의 次元에서 본다면 全韓半島가 単一의 生活圈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韓半島의 어느 곳에서 어떤 職種에 従事하거나 法的, 制度的, 体制的인 障碍가 없는 状態를 말한다.

이러한 形態와 内容을 갖이는 統一이란 政治의 領域(그것이 国内政治이건 国際政治이건 間에)에서는 오로지 勝利와 敗北라는 政治의 過程을 겪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그 勝利와 敗北란 体制間의 純粹한 物理的 武力의 衝突만이 아니라 体制維持의 能力에 있어서 甲의 体制의 構成員이 法的으로 자기가 속하고 있는 体制에 対해서 対立的인 乙体制에 対해 더욱 忠誠心을 発揮하게 될때 甲体制는 乙에게 敗北한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統一의 境遇도 武力統一과 平和統一로 両大別하고 그중에서도 南에 依한 境遇와 北에 依한 境遇 그 対内的 意味와 国際的反響을 仮定하여 方案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ㄱ) 武力統一

A 南韓에 依한 武力統一

南韓에 依한 武力統一 企図의 例는 1950年10月8日 유엔軍의 北進을 合法化하는 유엔総会의 決議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決議와 그 以後 措置의 当否는 이자리에서 깊게 論할 것 없다. 다만 다시 이러한 境遇의 可能性을 研究하는데 그치고저 한다.

南韓에 依한 武力統一의 可能性이 생길 狀況이란 다음과 같다.

① 南・北韓間의 武力衝突이 거의 全面的이 되어(피차 相対方이 먼저 武力挑発하였다고 主張하는 狀況에서) 現在 38度線을 지켜야 할 義務가 거의 없어진 狀態

② 北傀 金日成이가 中・蘇間 中立政策을 追求하다가 그것이 度를 지나쳐 中・蘇모두에 依해 不信을 당하고 있을 境遇.

③ 印支半島에서 밀려난 美国(또는 台湾에서도 中共에게 不可避한 譲歩를 하고) 그 補償策으로 韓半島에서 影響力을 拡大하려 할 境遇

南韓에 依한 武力統一의 政策狀況과 保障制度는 다음과 같다.

① 韓国과 美国은 北緯39度線以北은 軍事的으로 進軍하지 않음을 軍事作戦開始와 同時에 公表할 것.

② 韓国과 美国은 北緯39度線以北地域을 非武装地帯로 宣言한다.

③ 美国은 韓半島는 対蘇 対中共 軍事目的으로 使用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단 韓・美防衛条約은 韓半島에 対한 外侵을

排除하는 保障制度가 생길때까지 존속함을 同時에 宣言한다.

④ 韓国政府는 自衛의 境遇 以外에 韓半島가 한 外国이 다른 外国에 対한 攻撃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음을 宣言한다.

⑤ 이러한 韓半島의 相対的 非軍事化를 美国의 対蘇 対中共和解의 주틀속에서 和解의 条件으로 昇華시켜 中·蘇의 保障을 받는다.

⑥ 이상과 같은 狀況에서 이룩된 南韓에 의한 統一이 美(日本包含) 中共·蘇聯間의 勢力均衡에 큰 변화가 없음을 美国과 日本이 宣言한다.

⑦ 美国과 日本은 中共과 蘇聯에게 継続해서 経済協力과 데땅뜨政策을 実施할 것을 宣言한다.

評　　価

南韓에 依한 武力統一의 可能性은 上記한 狀況中 첫째로 金日成이 中·蘇 모두에 依하여 不信당할 可能性은 거의 없으며, 둘째로 이미 共産化된 地域의 喪失은 蘇聯이나 中共에게 모두의 責任으로 国際共産主義에 依하여 糾弾될 것임으로 中·蘇가 第3次大戰의 위협이나 그 以上의 狀況이 아니고는 순전히 利己的인 立場에서 받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民主党支配下에 있는 美国議会의 性格으로 보아 責任이 他便에 있는 武力衝突의 狀況이 일어 난다고 하드라도 38度線以上으로의 進撃을 通한 亜細亜大陸에 이 以上 더 깊이 介入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案은 第3次大戰과 같은 狀況이 생기는 境遇에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B 北韓에 依한 武力統一

北韓에 依한 武力統一企図의 例는 6.25戰争에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再燃될 수 있는 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美国의 対韓公約이 越南에 対한 것과 같이 制限的이라는 事実이 確認될 때.

② 駐韓美軍의 数가 적어져서 戰鬪力으로서는 意味가 없을 程度로 象徵的인 것에 그치고 있을 때.

③ 美·蘇·中共関係의 和解가 깊어져 韓半島에서의 南·北韓間의 対立과 그 結果가 美·中·蘇間의 勢力均衡이나 利害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狀態에 이르렀을 때.

④ 政権交替(平和的이건 아니건 間에)에 依하여 新政府가 南·北和解에 対한 과잉기대의 나머지 駐韓美軍의 必要性을 軽視하고 이로서 駐韓美軍의 撤収가 不可避해 질때.

⑤ 1977以後 国軍現代化計劃이 完成되고 나면 駐韓美軍이 撤収 또는 크게 減縮되는데 그때 国軍現代化가 数字上의 것에 지나지 않고 南·北韓軍事力에서 北韓이 優勢하다고 판단할 때.

評 価

여기서 보는데로 北韓에 依한 武力統一의 可能性은 어떤 境遇에든 美国의 対韓防衛公約의 確実性 与否에 달려 있다.

太平洋国家로서 姿勢를 再樹立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美国의 新孤

立主義的傾向으로 보아 이러한 可能性은 전혀 排除할 수 없다.

다만 韓半島는 越南의 境遇와 다르다는 点을 考慮한다면 公約은 繼続 確実케 지키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越南의 境遇와 다른 点으로 다음과 같은 点을 들 수 있겠다.

(1) 南・北韓分斷은 印支半島에서와는 달리 美国이 直接 그 한 当事者로 參与하였다. 이점에서 越南에서는 仏蘭西것을 引継받은 境遇와 다르다. 即 韓半島分斷의 直接的 責任者의 하나다.

(2) 韓国과는 相互 防衛条約이 存在한다.(勿論 憲法上의 節次를 밟도록 되어 있지만)

(3) 韓半島의 戰略的地位는 印支의 그것에 비해 더욱 重要하다. 韓半島는 中・蘇两大国과 国境을 연하고 있고 日本과는 좁은 海峽을 사이에 두고 있다.

(4) 蘇対立의 激化로 中共(또는 蘇聯이)駐韓美軍의 存在를 必要로 하는 局面이 있다.

(5) 全韓半島의 共産化로 日本의 安全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점을 考慮한다면 美国의 対韓防衛公約을 駐韓美軍의 多寡에 不拘하고 完全하고 確実한 것이리라는 期待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 依한 全面的 武力統一의 可能性은 적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어떠한 境遇에도 北韓에 依한 武力統一의 可能性이 南韓에 依한 그것보다는 크다는 것은 再言을 요치 않는다.

ㄴ. 平和統一

南北韓이 모두 平和統一이란 같은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데 表現上으로 보면 南韓이 平和에 力点을 두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統一에 力点을 두고 있다. 南쪽은 보다 現実的인데 反해 北은 보다 이데올로기的이다.

여하튼 統一이란 単純이 政治의 過程을 떠난 運動競技上의 技術的 조정이나 作業과는 다르다. 「平和的」이란 形容詞가 붙기는 하였으나 統一이란 技能的으로 조정 統合하여 이루어 질 性格의 것은 아니다. 일단 対立하는 두個의 政治主体間의 成敗를 다루는 過程에서 어느쪽도 一方的 敗北와 一方的 勝利가 아닌 그러한 狀態에서 비로소 「平和的」統一이 可能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南·北 雙方이 提示하고 있는 方案이 他에 納得이 가거나 또는 不得己 추종하드라도 큰 損害가 없는 그러한 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案이건 이를 提案하는 主体가 있게 마련이니 이런 観点에서 両者의 提案을 検討하고 그 妥当性을 点検한 다음 両者의 利害에 最小限에서 나마 共通点을 賦与할 수 있는 案을 構想해 보기로 한다.

A 南韓의 平和定着 方案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南韓은 統一 그 自体의 非現実性 때문에 오히려 現実的인 平和에 力点을 두고 있다. 따라서 現在까지 政策으로 提示된 範囲内에서의 平和統一 概念은 最小限의 境遇 現在의 対決的 共存狀態에서 相互의 存在를 法的으로나 政治的으로 認定하고 南·北間에 制限的交流와 적당한 統制에 依한 両

住民의 来往이 可能한 段階까지를 包含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内容을 세가지의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対決的共存(Contested or Hostile Co-existence)

現在의 南北韓間의 狀態가 代表的인 例이다. 国際法的으로 말하면 非交戰狀態에 해당할런지 모른다. 피차 戰争을 再開할 積極的인 意思와 能力을 갖지 못한 狀態이다. 이를 理論的 特徵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南·北間 戰争은 언제든지 再開될 수 있는 狀態(7.4 共同声明이 있으나 実際 効力이 北의 行動에 依해 否認되고 있다.)

㉡ 다만 서로가 戰争再開의 積極的 意思나 能力을 갖지 않고 있다.

㉢ 서로 相対를 法的으로나 政治的으로 그 独自性을 認定할 생각이 없다.

㉣ 相互間 一切의 交流가 없는 狀態(南·北調節委나 赤十字社間의 接触은 対決的接触에 지나지 않는다)

㉤ 이 狀態의 特徵은 南·北雙方이 모두 이 狀態대로의 継続을 원치 않고 있다는데 있다.

② 国際的으로 戰争再開가 견제되고 있다.

<u>対決的共存狀態와 評価의 展望</u>

이 狀態의 特徵은 平和의 達成이란 이름하에서 이건 統一이란 口実하에서 이건 南·北韓이 모두가 이 狀態의 지속을 적어도 表面上으로는 원치 않고 있는데 반하여 国際環境은 별 代案이 없는

한 現狀態의 持続을 바라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対決的共存」狀態의 展望은 적어도 表面上으로 現狀에 満足하지 않는 南·北韓이 피차 讓步 또는 調整에 依하여 보다 平和的인 関係쪽으로 움직이려 할 境遇 国際政治 環境은 여기에 順応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이 現狀에 満足치 않고 戰争으로 나아가는 것은 国際環境이 이를 허용치 않을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対決的共存狀態의 存続이나 変更의 이니시어티브는 国際環境에 依하여 보다 南·北韓에 있어서 提起될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越南戰争以後의 美·中·美·蘇関係의 進展으로 日·中共 및 日·蘇가 講和条約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厳正한 共存関係」가 韓半島内外의 情勢性格으로 보아 가장 現実性이 많은 것이라 하겠다.

② 平和的 共存関係

이 狀態는 대체로 「厳正한 共存関係」의 境遇와 거의 같다. 다만 다른 点은 다음과 같은 点에서 程度의 差를 들 수 있다. 「平和的 共存関係」에서는

㉠ 南·北韓間에 形式上으로 戰争을 自己体制 拡張의 手段으로 쓰지 않는다고 宣言 約束한데 지나지 않고 나아가서 実際로 戰争抛棄의 狀態에 들어 갈것.

㉡ 다만 体制間의 競争은 経済的인 重点에 옮겨 질것.

㉢ 南·北政府間의 交流가 多方面化되고 住民間의 交流도 制度化될 것.

㉣ 南·北調節委의 기능이 強化, 多方面化되어 主權的인 意味의 權能은 없으나 技能的인 面에서 聯邦政府에 가까운 포괄적인 交流業務가 隨行되는 狀態.

㉤ 交流進行에 따라 相互 代表部가 雙方의 首都나 主要 都市에 設置되는 狀態등을 들수 있겠다.

「平和的 共存関係」状況하에서는 国際環境은 「厳正한 共存」의 境遇와 거의 같으나 다만 韓·美防衛条約은 消失될 것이며 韓半島는 軍事的으로 中立化가 制度化될 것이라는 点에서 다르다.

平和的 共存関係의 評価와 展望

武力에 依하지 않고 完全한 統一을 이루기는 不可能하다. 이러한 狀態에서 우리가 民族共同体 意識下에 享有할 수 있는 최대 우 狀況이 이 平和的 共存関係이다.

그러나 北韓이 共産体制를 抛棄하지 않는 한 여기에 同意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狀態에서는 共産体制는 維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理想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厳正한 共存関係

이 狀態는 現在의 南·北韓間의 非戰争 非平和狀態에서 相対를 法的 政治的 単一体로서 承認 또는 認定하되 住民間의 交流가 原則的으로 없는 狀態를 想像할 수 있겠다. 단 政治単位間의 公的인 接触 또는 交流는 制限된 範囲에서 實施되고 또 이를 拡大시킬 수 있는 基盤이 이루어진 狀態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狀態의 理論的 特徴은 다음과 같다.

㉠ 南·北韓間에 戰爭을 統一(自己体制 拡張)의 手段으로 使用하지 않겠다는 意思表示가 있고 이것이 相互 確認될 수 있어야 한다. 例컨데 南·北韓間에 相互不可侵 協定이나 또는 平和条約에 依한 意思의 確認.

㉡ 南·北韓이 서로 相対를 法的 또는 政治的으로 承認할것.

㉢ 両者間에 独立国사이에 通常的 있는 接触과 交流는 実施될 수 있는 狀態에 있다.

㉣ 休戰線上에 非武装地帯가 보다 拡大되면 더욱 可하다.

㉤ 両者間에 軍備増強中止 또는 軍縮을 為한 合意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実践에 옮겨 질 때 더욱 安定된 狀態를 保障할 수 있을 것이다.

㉥ 彼此間에 敵対的인 煽動과 他를 転覆하려는 政治的행패인은 禁止된다. 따라서 「게리라」나 間諜의 派遣도 禁止된다.

㉦ 相互関係를 규제 調整하기 為하여 板門店에 기위 合意된 調節委員会 共同 事務室을 設置 運営한다. 그리고 調節委員会의 技能을 점차로 拡大시키려는 姿勢를 서로가 가질 것. 調節委員会의 技能을 極大化시키는 境遇 聯邦制의 効果까지 充分히 거둘 수 있는 것이다.

嚴正한 共存関係의 国際環境

㉠ 南·北이 유엔에 同時加入이 이루어 지거나 여기에 크게 反対하지 않는 狀況.

㉡ 「브레즈네프」가 提案하고 있는 亜細亜集団安保의 方式이 보다 具体化하여 南·北韓의 上記한 内容의 共存関係가 集団安保措

置로서 国際制度化할 수 있을 것이다.

ⓒ 蘇聯式 集団安保制가 中共에 依하여 거부된다면 実質的으로 大差없는 方法으로 日·蘇講和条約과 日·中共講和条約의 締結과 時期를 비슷하게 하여 南·北間의 不可侵条約 또는 平和条約을 成立시켜 이 세가지 条約成立을 기해 東·北亜平和会議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南·北間의 厳正共存은 하나의 国際制度로서 保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境遇 駐韓美軍은 撤収하거나 거의 상징적인 状態로 남을 것이다.

ⓔ 이러한 境遇 韓·美防衛条約은 有効期間이 明示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대로 冬眠状態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어떠한 境遇에도 이러한 状況에서는 美国은 南·北間에 적어도 制度的인 또는 形式的인 등거리⑦外交関係를 推進할 것이다. 日本도 여기에 따를 것이다. 지금도 北傀는 駐韓美軍撤収口号를 対美交渉을 為한 口号로 転換시키려 하고 있다.

ⓖ 이에 따라서 韓国도 中共과 蘇聯등과 外交的인 接触과 交流가 公式化될 수 있을 것이다.

ⓗ ⓒ에서 言及한 「東北亜平和会議」의 方式에 따라서는 이 会議에서 交互承認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南·北間의 境界를 国境으로 한다는 規定은 없을 것이다. 平和的으로 民族自決의 原則에 따라서 統一한다는 것은 韓国人에게 맡긴다고 할 것이다.

㉪ 南北韓全域에 걸쳐 國際的으로 軍事的 中立化가 試図될 것이다.

嚴正한 共存関係의 評価와 展望

이 狀態는 대체로 東・西独関係와 類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① 38度線을 国境線으로 한다는 規定은 할 수 없는 점 ② 同族間에 戰争을 치루었기 때문에 오는 緊張의 潛在性 ③ 法的・事実的 接触関係가 적은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東北亜会議」方式도 現在의 中・蘇対立의 性格으로 보아 어려울 것이나 韓国은 休戰協定에 따르는 平和定着을 為한 方案으로서의 美・中共 南・北韓間의 会議로서 韓半島問題를 처리하려 할 때 蘇聯의 反対를 克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上記한 「東北亜 平和会議」의 方案이 보다 実現性이 많은 것이라고 하겠다.

嚴正한 共存関係가 制度化되려면 勿論 北韓의 赤化統一政策 拋棄가 先行되어야 하는것은 더 말할것 없다. 北韓의 이러한 政策拋棄는 国際環境의 造成없이는 期待하기 어렵다. 国際環境이란 다만 国際的으로는 이러한 狀態를 歓迎할 것이다.

B 北韓의 平和統一方案

北韓이 提起하고 있는 所謂 平和 統一方案은 聯邦制案이다. 北韓에서 말하는 聯邦制가 聯邦制를 通한 統一을 目的으로 한것이 아니고 駐韓美軍을 撤収시키고 南北韓 유엔同時加入을 좌절시키기 為한 手段이지 그 自体 統一의 한 方法 또는 過程으로서

의 성실한 聯邦制가 아니다.

따라서 北韓側은 聯邦制란 単語만 提起하였지 具体的인 提案을 해 온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一般論으로서의 聯邦制를 検討하고 여기에 따라 北傀의 意図를 밝히는데 그치고저 한다.

① 聯邦制의 概念

聯邦制란 独立된 政治単位로 認定되는 두개 以上의 国家 또는 政府가 対外的으로 하나의 政治体로 나타나는 境遇 또는 한 政治単位가 技能的으로 他単位와 聯合하여 하나의 政治単位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聯邦制의 古典的인 例는 1815年 「비엔나」(Vienna)条約에서 정한 「独逸聯邦」(German Confederation)이 있고 또 1867年 오스트리아帝国이 두個의 国家로 나누어져서 聯邦制로서 한 나라로 1914年까지 지탱해 왔다. 独逸聯邦은 中欧의 無力化를 꾀하는 当時의 国際政治를 反映한 것이었고 中欧에 対한 오스트리帝国의 影響力을 合法化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비스말크」에 依해 統一될 때 까지 存続되었기 때문에 聯邦이 単一国化한 例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의 境遇 多民族 単一国家가 民族主義의 高揚으로 「항가리」民族에게 自治를 許容하는 方法으로 聯邦의 体制를 가추었고 결국 一次大戰後 「오스트리」와 「항가리」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聯邦制란 그때 그때의 歴史的状況에 따른 政治의 産物이지 반드시 単一国를 志向하는 과도적인 것만은 아니다. 蘇聯이나 美国 그리고 西独도 聯邦制란 이름을 갖이고 있으나 聯邦制 本来

의 것과는 다르며 이름만의 聯邦制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聯邦의 構成方法에 따라서 聯邦과 그 構成政治体間의 技能的인 関係나 権限의 所在状況이 다르다. 上記한 独逸聯邦의 境遇 対外的主権도 構成政治体가 갖이는 完全한 独立国家로 行勢하고 다만 그 政治体의 크기가 보잘것 없어서 経済 文化의 聯帯를 為한 聯邦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聯邦은 聯邦이 対外的인 主権을 行使하고 있었다.

이러한 例에서 보드시 聯邦制가 어떤 政治的統合의 過程에서 中間形態로 또는 暫定的인 人為的인 制度인 것이 아니라 그 自体가 歴史의 産物이며 独自的인 政治形態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② 北韓의 聯邦制案

1973年6月23日 金日成은 所謂 5大綱領에서[8] 「北과 南사이의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実現하며 北과 南사이에 각계 各層 人民들과 各 政党 社会団体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会議를 召集하여 高麗聯邦共和国의 単一国号밑에 南北聯邦制를 実施하며 単一한 高麗聯邦共和国의 国号를 갖이고 유엔에 들어가자」고 하고 있다.

北傀는 1960年以来 継続 聯邦制를 提案해 오고 있으나 聯邦의 具体的 構成方法을 한번도 具体化한 적이 없으며 다만 「당장 統一하기가 어렵다면 現在의 南北体制를 그대로 두고 聯邦制를 実施하자」고 해 온데 지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発表를 通해서 보면 그들의 提案을 善意로 解釈하는 境遇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 南北의 現在의 国内体制는 그대로 維持한다.

㉡ 対外政策에 関해서는 不明確하다. 聯邦政府가 対外政策을 行使할 수도 있겠고 南北이 그대로 継続 独自的 対外政策을 維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南北間 住民의 往来는 거의 自由스러울 것이다.

㉣ 国民은 原則的으로 南北韓의 現存 体制의 構成員이 되며 南北韓間에 所属을 변경할 選択의 権利는 賦与되어야 할 것이다.

㉤ 南北間 交流와 合作은 多方面化할 것이다.

㉥ 이리하여 一定한 時期 統一政府를 세워 統合한다.

③ 評価와 展望

이러한 聯邦制가 実施될려면 먼저 南北韓間 政治体制의 存続이 일단 保障되어야 하는데 그 自体가 不可能하다. 그리고 住民의 移動과 所属国의 選択権을 賦与하는 境遇 体制間의 緊張과 競争은 피할 수 없으며 결국 聯邦制의 運営은 不可能하다.

또 1815年의 上記한 蘇와같은 「独逸聯邦」은 그 構成国이 対内外的인 完全한 主権을 갖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形式은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形態의 聯邦制는 北傀 스스로가 拒否하고 있다. 即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⑨ 「祖国統一問題는 北과 南으로 갈라진 国土와 民族을 機械的으로 統合하는 것으로는 解決될 수 없는 것이고 南半部에 세워진 美帝의 植民地統治를 청산하고 全国土의 完全解放을 基本 内容으로 하는 民族解放 革命의 性格을 띠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明白히 「機械的으로 統合」하는 聯邦制를 拒否하고 있다. 그리고 北傀의 聯邦提案의 前提가 美国撤收인데 이것은 南韓의 外交權을 拒否하고 있다. 結果的으로 보면 理論上으로 보드래도 聯邦을 為한 聯邦制라야지 과도적 暫定的인 制度로서의 聯邦이란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4. 平和定着을 爲한 政策(建議)

4. 平和定着을 爲한 政策(건의)

以上의 研究에서 平和定着을 위한 韓半島內外의 環境의 性格으로 보아 平和定着을 위한 代案中에서는 「嚴正한 共存関係」가 가장 現実性이 많으며 이것을 目標로 한 国内的 対備와 外交의 展開가 必要한것 같다..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対外政策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건의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유엔同時加入의 추진

유엔同時加入의 추진은 두가지 效果가 있다.

첫째로 北傀가 駐韓유엔軍 및 駐韓美軍의 撤収를 유엔에서 挙論하는 境遇 여기에 対応하는 잇슈로서 提起될 수 있으며 外交活動의 展開에 따라서 유엔同時加入은 説得力있는 政策方案임.

둘째로 유엔同盟加入은 그것이 実現되는 境遇 「嚴正한 共存関係」型의 南北韓 平和定着에 補助的 効果가 있음.

셋째로 유엔同時加入이 実現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南·北韓間의 平和定着努力에 対해 国際的関心을 継続 維持하는데 도움을 줄것임.

② 南·北韓頂上会談

現 状態에서는 状況이 不適当하나 平和定着이 可能해 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境遇 예컨데 日·蘇 및 日·中共平和条約이 成立된다 든지 美·中共 및 美·蘇関係가 진척된다 든지 하는 境遇

平和定着을 為해 南・北韓頂上会談 或은 거기에 準하는 接触은 거의 不可避할 것임.

南・北韓頂上会談이 必要하거나 可能해질 状況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 日・中共 및 日・蘇平和条約의 成立

㉡ ㉠의 境遇를 契機로 한 「東北亜平和会議가 열릴 契機가 생기면 이 会議以前에 提議 또는 実行될 수 있을 것임.

㉢ 美・中共関係의 進展이 이루어져 中共이 金日成에게 現状維持政策을 권할 수 있을때

㉣ 南・北韓間에 不可侵条約等이 調印되는 것과 時期를 같이 하여

㉤ 美国이 北韓과 公的인 接触을 하게 될때

이상과 같은 状況이 展開될 것이 豫見되면 먼저 頂上会談을 提議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 境遇 提案할 案은 調節委機構 拡大와 기능강화, 赤十字人道主義 事業의 実現等일 것이다.

大韓民国의 平和主義的政策을 과시하고 北傀로 하여금 共存政策으로 나오게 하기 為하여는 大統領 또는 大統領特使가 北京이나 「모스코」를 訪問토록 하겠다는 提案이 오히려 北韓에 頂上会談을 提議하는것 보다 더 現実的이고 国際的反応도 좋을 것이다.

③ 韓国大統領의 北京 및 「모스코」訪問提案

이것은 対北韓頂上会談提案 보다 더 現実的이고 可能한 方案일 것이다. 그 效果와 方法은 다음과 같이 列挙할 수 있을 것이다.

㉠ 大韓民国의 平和主義的 姿勢를 과시하고 北傀로 하여금 共存政策으로 나오게 하는데 있다.

㉡ 大統領이 直接 또는 特使를 派遣하고 이때 多数 随行員을 帯同하여 誠意를 보이는 一方 多方面의 정보를 얻고 交流의 対象을 拡大한다.

㉢ 平和定着事業에 効果가 크다.

㉣ 이提案이 拒否되더라도 威信에는 큰 影響이 없다.

㉤ 美国의 対中共 対蘇和解政策의 一環으로 進行시킬 수 있다.

㉥ 日本의 対蘇 対中共講和의 분위기와 状況을 利用할 수 있다.

㉦ 提案方法과 事業交渉은 75年内 実施되는 美・蘇頂上会議 「포드」의 中共訪問時가 적절할 것이다.

㉧ 美国内의 反韓與論을 크게 무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東北亜平和会議」를 促進하는 結果가 되며 이 会議에서 우리의 立場을 有利하게 展開시킬 수 있을 것이다.

㉩ 訪蘇의 境遇 이것은 蘇聯의 亜細亜集団安保路線과 어긋나지 않음을 表示할 수 있고

㉪ 訪中共의 境遇 美・中共和解의 一編으로 説明할 수 있을것이다.

㉫ 時期는 日・中共, 日・蘇講和成立 直前 東北亜平和会議 以前이 좋을 것이다.

註 ① 「南北対話와 体制改革」 (平和統一問題研究会刊, 1972.10) PP 8～9.

② " A Vision of Peace ". US Policy Statement Series-1973

③ james R.Schlesinger Annual Defence Depart ment Report, Fy1976 & Fy 1977 (GOV. Printing Office , Warhington, D.C.) PP 111－8 , 9,11.

④ 「アジア集団安保と 千島問題」志賀義雄 編 P.241

⑤ 「第29次 유엔総会 韓国問題 討議録」(외교 연구원, 1975.1) P.257

⑥ 上同 P.60.

⑦ " One Korea ? " Selig S.Harrison. 「Foreign Policy」 (Winter, 1974－75) PP.35－62

⑧ 労動党政策史講座－金日成放送大学 講議録－II (極東問題研究所, 1974.4) P267

⑨ 上同 . P.228